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한 번 더’ 도약하다

부산광역시의 광안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명 관광지이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휴양 기능 약화와 함께 도시와 맞닿아있는 도심형 해수욕장이라는 한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수영구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을 조성하여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작성 : 부산광역시



01 부산의 유명 여름 관광지 광안리 해변, 스마트기술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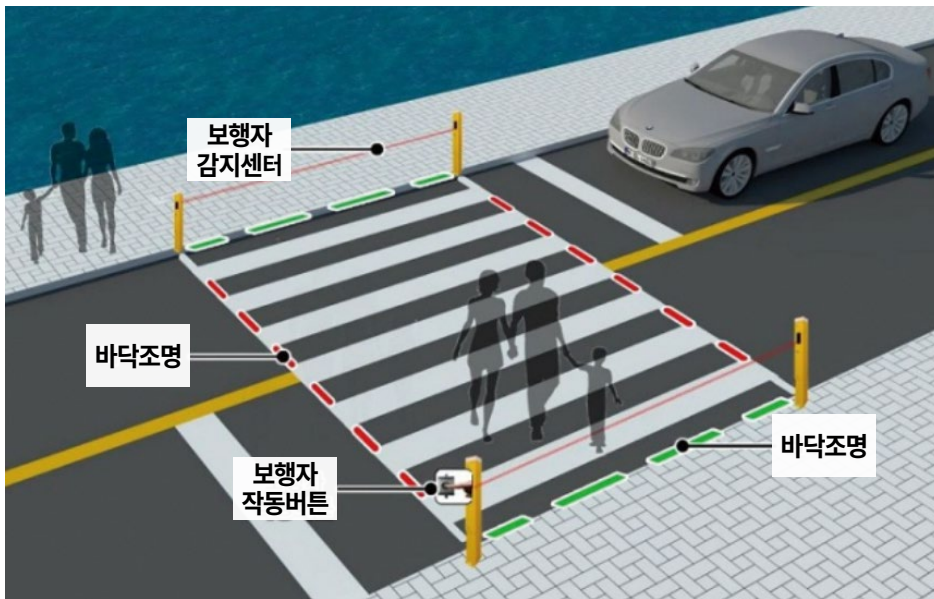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래전부터 여름만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명 관광지였다.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과 국내 최대 횃집들이 밀집된 민락동, 해안친수공간인 수변공원까지 여름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2003년에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가 개통되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남천동이 빵의 메카로 유명세를 타면서 일명 빵천동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영구는 해수욕장의 휴양기능이 약화되고 도시와 맞닿아 있어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골치를 앓았다. 그래서 도심형 해수욕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02 스마트타운으로 변신을 앞둔 광안리 해변

수영구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다시 찾고 싶은 광안리’를 목표로 광안리 일원을 스마트타운으로 조성중이다. 관광객이 스마트타운 구역으로 들어오면 구에서 설치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에 앱이 자동 실행된다. 수변공원에서 광안리 땃천동(남천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AR기반의 길찾기, 상가정보, 주차정보 그 외 축제 공연 행사 정보가 제공된다. 스마트타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관광안내소를 통해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및 광안리를 처음 찾는 관광객이 QR코드를 인식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스마트 방향 표지판 설치, 광안리 해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스마트기기 충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벤치 설치한다. 이 밖에도, 해변 이용 관광객의 야간 보행 사고 방지를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감지센서와 바닥 조명이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1> 스마트 횡단보도 이미지

03 수영구, 문화관광도시로의 재도약

스마트타운 서비스들은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며 데이터화된 관광객의 이동 패턴은 수영구 관광정책에 반영되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수영구에서는 이번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계기로 광안리 해변 일원과 수영구가 문화관광도시로서 한 번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뿐 아니라 복지 환경 분야로 스마트사업을 확대해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